



중국의 화장실에 가보셨나요?

시인 김 우 영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중국의 공중화장실은
놀라움 그 자체.
사람으로 북적대는
문짝 없이 '탁' 트인
색다른 공중화장실
체험기를 느껴보시라.

1993년 7월,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나는 중국 천진항(天津港)에 도착했다.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배편을 선택한 것은 출발 전날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 도착해서 발급해 주는 선상비자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20여일간의 배낭여행이 시작됐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참 이상한 나라 그것이 발을 디딘지 며칠 만에 느끼게 된 중국의 인상이었다.

여행코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나 계획도 없었고 기차나 비행기, 호텔 예약도 안된 상태에서 겁없이 시작된 그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진행됐다.

지금 생각해보도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였으니까...

이들만에 호텔에서 용무를 보다.

천진에서 한밤중에 간신히 마이크로버스를 얻어 타고 28시간 걸려 도착한 심양, 그러나 기차표를 사려면 한달은 걸린다는 말에 낙심만만해 있을 때 다가온 한 사내. 그는 손을 입 옆에 대고 나직한 목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했는데 중국어를 모르긴 했지만 단번에 사내가 압표장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배를 더 주고 산 기차 압표로 우여곡절 끝에 16시간만에 연길에 도착, 그길로 먼저 호텔부터 찾았다. 호텔에 방을 정하자마자 나는 서둘러 화장실 문부터 열고 들어가 앉았다.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배설의 쾌감. 휴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여기가 중국땅이라는 걸 실감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왜 그전에 화장실을 가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필자는 원래 시골출신이어서 바닥에 더러는 구더기가 기어 다니고 냄새도 나는 뒷간에 익숙한 사람이다. 수세식이 대중화되던

시기에도 오히려 '퍼세식'에 들어가 앉아야 마음이 편안해질 정도로 '낙후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가 천진항에 내린 이후 장장 이틀을 참고 참다가 호텔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용변을 보게된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중국의 화장실 때문 이었다.

문이 없고 칸막이도 없는 공중화장실

중국에서는 화장실을 '치수어(廁所)'라고 한다. 천진을 출발해 한참 달려가다가 북경을 지나 어느 마을 공중화장실에 들렀던 나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화장실은 문짝이 없었다.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문짝을 만들어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장실 안에는 개개인이 용변을 볼 수 있는 칸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변 소변 보는 곳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그냥 문짝도 없는 공간 가운데에 시멘트로 길다란 고랑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이곳에 어떤 사람은 선 채로 소변을 보고 그 옆에서는

고랑을 타고 앉아 대변을 본다.

나는 놀라서 간신히 소변만 보고 나오는데 중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다. 너무도 태연한 표정으로 제 볼일들을 보고 있다.(그 후 귀국하기 얼마 전 북경역 화장실에 들어가 보았다. 두 줄로 된 기다란 고랑에 십 수명이 한거번에 촘촘히 쭈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느라 앞뒤에서 ‘꽝꽝’ ‘뿌지직’ 소리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와중에 으악! 세상에나, 만두를 맛나게 먹고 있는 사람까지 보았다.(정말이다.) 질겁을 하고 차로 돌아와 옆에 앉아 동행하던 조선족 동포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그건 약과라는 것이다. 시골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아예 남녀 구분도 없다는 거다. 즉 남녀가 함께 들어가 엉덩이를 까고 볼일을 본다든 것인데 불행(?)히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는 없었다.

그 와중에도 만두를 먹고 있는 중국인

이렇게 기다란 도랑에 분노가 쌓이면 눈 치올 때 쓰는 냅가래 같이 생긴 도구로 한꺼번에 밀어서 한쪽 구석에 있는 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다. 그리고 물 한 동이 휙 부리면 끝. 하지만 이런 화장실이라도 중국돈 2각(角) 정도의 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

그 뒤로 연결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인가 화장실에 들어가 뺏속의 거북한 덩어리들을 밀어내 보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연결의 숙소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급하면 통한다고 나중에는 간신히 이런 ‘환장적’인 화장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질적인 환경에는 어찌 어찌해서 적응(?)을 시켰지만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발디딜 틈 없이 바닥에 널려있는 변들이었다.

한사람이 바닥에 변을 보고 나면 다음 사람은 그 앞에, 또 그 앞에... 이렇게 해서 화장실 밖 주의를 몇 겹으로 둘러싸 진(陳)을 형성하고 있는 경악스런 광경에는 도저히 적응이 되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숙소로 뛰어 들어오거나 숲속으로 들어가 실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민족의 성산(聖山)인 백두산 아래 화장실이 그중 더욱 심했다. 지금은 좀 나아졌기를 바란다.

중국여행객, 화장지는 꼭 챙겨가기를

물론 그러지 않은 곳도 있었다. 북경 자금성 화장실과 만리장성을 구경할 수 있는 팔달령 화장실 같은 곳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 놓았다. 요금은 내야하긴 하지만 관리인도 있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아마도 많은 외국인들이 몰리는 곳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이 더욱 많은 외국관광객 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국을 여행하는 분들은 반드시 화장지를 넉넉히 준비해 가시기를 권한다. 화장지가 비치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웬만하면 숙소에서 미리미리 용변을 해결하고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좋다.

지금도 ‘중국’ 하면 화장실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공중화장실을 가보라고 권한다.

이것은 그 나라를 멸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를 체험해 보라는 뜻이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생각 하면서 중국을 자주 왕래하는 지인(知人)에게 물어보니 웬걸, 공중화장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나? 그리고 지금도 그 속에서 만두를 먹는 사람이 간혹 눈에 띄기도 한다.



▲ 백두산 천지 오르는 길. 이 사진엔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너무 더러워 카메라를 들이댈 수가 없었다. 오른쪽에 그 문제의 화장실이 있다.